

日 총리 바뀌어도 한·일 경색 이어질 듯

스가 장관 “한·일 관계, 국제법 위반에 철저 대응” 강경... 오늘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시작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용 배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오는 14일의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스가 장관은 7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장관이 외교 분야의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이른바 정용공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전날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이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2018년 한국대법원의 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정용 배상 문제로 파탄 상황을 맞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가 이번에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총리가 된 후에도 관방장관 자격으로 반복해서 밝혀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베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 의사를 밝힌 스가(71) 장관, 기시다 후미오(63)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 이시바 시게루(63) 전 자민당 간사장은 8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후에 소견 발표 연설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오는 14일 양원 총회에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94명)과 전국 47개 시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체 535표 중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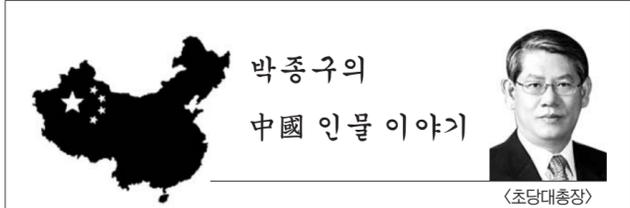
세 후보 중에 자민당 내의 7개 파벌 가운데 5곳(264명)과 일부 무파벌 의원(40여명)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스가 후보가 지역당원 표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조사가 결과나와 1차 투표에서 스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선자는 다수당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취임해 오는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태풍 ‘하이선’에 지붕 와르르 일본 가고시마현 아미미 지역 주민들이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동반한 강풍에 무너져 내린 지붕을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248> 육구연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의 자는 자정(子靜)이고 호는 상산(象山)으로 강서성 금계 출신이다. 주희와 더불어 송대 성리학계를 양분한 유학자로 명대 왕양명, 양자호가 학풍을 계승했다.

남송 효종 건도 8년(1172) 진사 시험에 합격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지방관으로 근무했는데 융흥부 정안현 주부, 건녕부 승안현 주부 등을 지냈고 국자정과 칙령소산정관을 역임했다. 어릴때부터 총명해 근본을 깨는 것을 좋아했다. 한번 생각에 빠지면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3-4세 때 부친에게 “왜 세상에 가난함이 생기는가”를 물었다고 한다. 형제인 육구소, 육구령과 함께 삼육자(三陸子)로

성되었다. 육구연의 제자가 주희를 방문하기도 하고 육구연 스스로 1179년 주희를 찾아가 3일간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인 육구령이 죽은 후에는 점차 소원해져 양 진영은 사실상 결별하는 관계가 되었다. 주희와 육구연 양인도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육구연은 순희 8년(1181) 2월 백록동서원에서 “군자는 의리를 좋아하고 소인은 이익을 좋아한다”(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였다. 배우는 사람들은 의리와 이익에 대해 자신의 뜻을 확고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주희는 이에 대해 평하기를 “강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하였다.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명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깊이 경

‘마음이 곧 이치’ 심즉리 강조한 유학자

블리었다.

하루는 고서를 읽다가 우주(宇宙)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사방을 우라 하고 지나간 과거, 미래, 현재를 주로 한다는 해석을 접하자 크게 깨달았다. 즉 우주 안의 모든 일은 내가 할 본인의 일이고, 내 본인의 일은 곧 우주의 모든 일이라는 인식이다. “우주는 곧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라고 생각했다. 정명도, 정이천 선생의 학설을 이어 받았다. 주희가 “본성이 곧 이치다”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한 반면 육구연은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심즉리(心即理)를 강조했다. 주희가 도학의 이학 일파를 세

계해 간다면 틀림없이 덕을 이루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이 자주 오르는 산의 모양이 코끼리와 비슷해 상산(象山)이라 이름짓고 스스로를 상산옹이라 하였다. 각지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운집하여 도를 배웠다. 형 육구령과 함께 강서의 이육(二陸)으로 불렸다. “이 마음이 선량함은 하늘이 내가 부여한 것이다. 능히 선량한 마음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주 안에 지극한 이치가 아닐 것이 없고 성현과 나는 동류(同類)이다”라고 주장했다. 육구연의 유심론(唯心論)은 아래의 문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영험하며 이(理)는 지극히 밝다. 사람은 모두 이(理)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주희는 비판하기를 “육구연의 기상은 매우 좋다. 하지만 강학을 버리고 실천에만 전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점차 이학(異學)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육구연은 젊은 시절 금나라에게 약화된 국세를 회복할 방책을 건의했지만 조정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낙향해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광종 초에는 형문군의 직책을 맡아 변방의 방어를 공고히 하는 등 치적을 쌓았다. 1193년 12월 병사했다. 사후 문안(文安)의 시호가 하사되었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출 1R 돌입

8명 중 5명 2라운드... 11월초 최종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협의의 절차가 7일(현지시간) 시작한다.

WTO 사무국은 ‘고백’(Confession)이라고 불리는 협의의 절차 중 1라운드를 16일 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선출 작업을 관장하는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의 의장을 비롯해 다시오 카스티요 분쟁해결기구(DSB) 의장과 하랄드 아스펠린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의장 등 3명이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후보의 선호도를 평가한다.

이번에는 가장 2개월 동안 총 3개 라운드로 진행되는 1라운드에서 후보 8명 중 선호도가 낮은 3명을 떨어뜨린다.

이후 2라운드에서 다시 3명을 탈락시키

고 최종 라운드에 2명을 올린 뒤 회원국 협의로 사무총장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시작한 2개월간의 선거 운동 기간 WTO의 가능 복원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책임자임을 알렸다.

그는 7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후보자 정견 발표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부를 밝혔으며, 이후 8월 31일 다시 제네바를 방문해 각국 대사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며 지지를 요청했다.

WTO 주변에서 아프리카 출신 또는 여성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유 본부장이 1라운드는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바이든 52% vs 트럼프 42%

美 CBS 대선후보 여론조사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유권자 2천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오는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그쳤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7%, 트럼프 지지자의 84%는 자신들의 지지가 ‘매우 강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날 여론조사 때마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혐의 시위와 관련해 유권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유권자의 49%는 바이든 후보가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으며, 30%는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유권자는 39%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립을 부추긴다고 답한 유권자가 47%에 달했다.

바이든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서 더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바이든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자 ‘코로나19 대응’을 꼽았다.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 ‘경제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